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적 분별: 『구별하는 표지』와 『종교적 정서론』을 중심으로

이 강 학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 교수

초록

한국 개신교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의 경험 이후로 한국 개신교인들은 부흥과 관련한 많은 영적 경험들을 축적해 왔다. 그 경험들의 양적 질적 넓이와 깊이에 반해, 그 경험들을 분별해 보려고 하는 목회적, 신학적 노력은 무척 일천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현대 한국 개신교인들은 특히 영적 경험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영적 여정에 안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개신교 영성의 대표적 인물인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가 영적 분별을 다룬 두 권의 책, 『구별하는 표지』(Distinguishing Marks)와 『종교적 정서론』(Religious Affections)을 통해, 18세기 영적 대각성운동(the Great Awakening)이라는 부흥 사건의 경험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고찰한다. 필자는 먼저 이 두 작품의 배경을 간략하게 다룬 후에 각 작품에 나오는 부정적 표지와 긍정적 표지를 분석함으로써 에드워즈의 분별 사상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두 작품을 비교한 후에 몇 가지 분별의 특징에 주목한다.

『구별하는 표지』에서, 에드워즈는 아홉 가지 부정적 표지와 다섯 가지 긍정적 표지를 제시한다. 여기에서, 부정적 표지란 부흥의 반대파들이 부흥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근거들로서 에드워즈는 그것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성경을 근거로 반박한다. 다섯 가지 긍정적 표지는 부흥의 경험이 확실히 성령의 역사라는 증거들이다.

『종교적 정서론』에서, 에드워즈는 먼저 정서의 정의를 내린 후에, 열두 가지 부정적 표지와 열두 가지 긍정적 표지를 제시한다. 에드워즈의 분별 사상은 분별 과정에서 영적 경험 안에 있는 감정과 느낌을 포함한 정서적 내면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부정적 표지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로서는 불확실한 표지를 말한다. 그리고 『구별하는 표지』에서와는 달리 부정적 표지는 정서적으로 고양된 경험을 너무 쉽게 신뢰해버리는 열심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해 사용된다. 열두 가지 긍정적 표지는 성령의 구원적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더욱 구별되고 확실한 표지를 말한다. 그 표지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바탕으로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1) 정서가 일어나는 기반은 무엇인가? (2) 이 정서는 무엇을 수반하는가? 그리고 (3) 이 정서에서 나오는 열매는 무엇인가?

『구별하는 표지』와 『종교적 정서론』의 차이점은 부흥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에드워즈의 분별 사상이 발전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에드워즈의 부정적, 긍정적 표지는 분별 과정에서 인지와 정서라는 요소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에드워즈의 분별에서 주목해야 할 요소는 마음의 감각, 미학적 요소 그리고 기독교인의 실천 등이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영적 경험을 분별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 단어들

영적 분별, 조나단 에드워즈, 부흥, 『구별하는 표지』, 『종교적 정서론』

I. 들어가는 말

한국 개신교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의 경험 이후로 한국 개신교인들은 부흥과 관련한 많은 영적 경험을 축적해 왔다. 여

기에서 영적 경험이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일컫는다. 구원과 관련된 거듭남의 경험, 영적 성장과 관련된 성화의 경험, 그리고 사역과 관련된 은사의 경험 등은 물론이고 자연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영적 경험의 양적 질적 넓이와 깊이에 반해, 그 경험을 분별해 보려고 하는 목회적, 신학적 노력은 무척 일천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현대 한국 개신교인들은 특히 영적 경험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영적 여정에 안내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최근 현대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적 경험은 분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공감대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현재 영적 경험의 상황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첫째, 영적 경험의 혼합 주의적인 경향에 대한 두려움이다. 기독교인들이 영성훈련을 받기 위해 자기가 속한 교단을 넘어서서 타교단의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종교를 넘어서 타종교의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다양한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하게 된 영적 경험이 개인의 내면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 혼란의 중심에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내가 경험한 것이 기독교의 영성적인 체험인가?” 둘째, 기존의 분별 방법에 대한 회의가 있다. 현대 한국 기독교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분별 방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목회자와 상담을 통해 분별한다. (2)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만나 예언을 듣고 분별한다. (3) 성경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감동되는 성경 구절을 기준으로 분별한다. (4) 삶에서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들을 기준으로 분별한다. (5) 꿈을 기준으로 분별한다 등. 기존의 분별 방법들이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된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셋째, 두 번째 상황과 관련해서, 현대 한국 개신교에 분별에 대한 원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원칙이 없으므로, 분별의 기준이 교단마다 다르고, 목회자마다 다르고, 신자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분별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현 단계에서 무척 중요하다.

분별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분별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었던 신앙선배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개신교인의 영적 경험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가

저술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구별하는 표지』(*The Distinguishing Marks of a Work of the Spirit of God*, 이하, 『구별하는 표지』)¹와 『종교적 정서론』(*A Treatise of Religious Affections*)²이다. 에드워즈는 18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대각성운동(the Great Awakening)의 중심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부흥이 뉴잉글랜드 지역을 휩쓸 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영적 경험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나름대로 분별의 원칙을 세우려고 했다. 위에 소개한 두 권의 책은 에드워즈가 세운 분별의 원칙이 담겨있는 대표적인 저술이다. 분별에 관심이 있는 영성학자라면 교단을 불문하고 에드워즈를 연구할 정도로 그의 저술은 영적 분별이란 주제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에드워즈의 두 작품을 통해 에드워즈의 분별에 대한 원칙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한국 기독교인들이 영적 경험을 분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구별하는 표지』와 『종교적 정서론』의 배경

1. 『구별하는 표지』

『구별하는 표지』는 1741년에 출판되었다. 본격적으로 부흥을 연구한 첫 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본래 1741년 9월 10일 조나단 에드워즈가 예일 대학 졸업식에서 한 연설이었다. 원제는 “최근에 이 땅의 수많은 백성의 마음에 나타난 특별한 일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구별하는 표지: 이 일에 수반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함”(The

1) Jonathan Edwards, “The Distinguishing Marks of a Work of the Spirit of God,” in *The Great Awakening*, vol. 4 of *Works of Jonathan Edwards*, ed. C. C. Goe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한국어 번역서는 조나단 에드워즈/노병기 역,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4)가 있다.

2) Jonathan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vol. 2 of *Works of Jonathan Edwards*, ed. John E. Smith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9). 한국어 번역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서문강 역, 『신앙과 정서』(서울: 지평서원, 1993)과 조나단 에드워즈/정성욱 역, 『신앙 감정론』(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5)가 있다.

Distinguishing Marks of a Work of the Spirit of God, Applied to That Uncommon Operation That Has Lately Appeared on the Minds of Many of the People of This Land: With a Particular Consideration of the Extraordinary Circumstances with Which This Work is Attended)이다. 이 논문에서 에드워즈는 부흥을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서 지지한다. 『구별하는 표지』는 경건을 판단할 수 있는 표지(signs)가 존재한다는 사상과 함께 그 표지는 긍정적인 표지와 부정적인 표지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한다. 1742년에 에드워즈가 쓴 다른 논문은 『구별하는 표지』의 배경을 좀 더 잘 설명해준다. 에드워즈는 『뉴잉글랜드에서 최근에 일어난 종교 부흥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Some Thoughts Concerning the Present Revival of Religion in New England*)³이란 논문에서 존 다벤포트(John Davenport) 같은 “경건한 열혈당”과 찰스 촌시(Charles Chauncy) 같은 “악마적인 반대자” 사이에서 견고한 자리를 잡으려고 시도했다. 다벤포트의 감정주의와 촌시의 합리주의의 갈등으로 뉴잉글랜드의 종교적 상황은 날카롭게 양극화되었다. 『몇 가지 생각들』에서 에드워즈는 『구별하는 표지』에서 제안한 분별 원칙을 적용하고 부흥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부흥을 변증함으로써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했다.

2. 『종교적 정서론』

『종교적 정서론』은 에드워즈가 『몇 가지 생각들』을 기록하는 가운데, 1742년부터 1743년 초까지 했던 일련의 설교문을 모은 것이다. 1743년 9월, 촌시는 『뉴잉글랜드의 종교 상태에 관한 적절한 생각들』(*Seasonable Thoughts on the State of Religion in New England*)을 출판했는데, 그 책에서 그는 부흥이란 단순히 열심주의의 확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743년 3월, 코네티컷 주의 뉴런던에서 다벤포트는 그가 받은 성령의 직접 영감을 따라 새 교회를 설립했다. 그는 수많은 목회자를 회심하지 않은

3) Jonathan Edwards, “Some Thoughts Concerning the Revival of Religion in New England,” in *The Great Awakening*, vol. 4 of *Works of Jonathan Edwards*, ed. C. C. Goe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면서, 청교도 교부들의 책 일부를 포함하여 많은 논문을 불살랐다. 1743년과 1746년 사이에, 『종교적 정서론』이 출판될 때, 촌시의 반부흥(anti-revival) 관점이 우세했고, “종교적인 것들”(the things of religion)은 사라졌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종교적 정서론』에서 에드워즈는 사람들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적들)의 전략을 언급하면서, 분별 되지 않은 정서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III. 『구별하는 표지』에 나오는 분별

1. 구조

『구별하는 표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요일 4:1을 간략히 고찰한 후, 부흥의 반대파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잘못 사건들을 판단하게 하는 아홉 가지의 “부정적인 표지”(negative signs)를 열거한다. 이 표지는 단순히 비본질적인 표지로 분류되며 이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구별하는 표지』의 두 번째 부분에서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확인시켜주는 “확실하고, 구별되는 성경적 증거들”, 다시 말해 다섯 가지 “긍정적인 표지들”(positive signs)를 열거한다.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에드워즈는 세 가지 내용으로 결론을 내린다. 즉, 부흥은 “대체로,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는 것과 반대파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부흥의 옹호자들에 대한 충고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내용 중 아홉 가지 부정적인 표지와 다섯 가지 긍정적인 표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에드워즈의 분별 특징들을 논한다.

2. 아홉 가지 부정적인 표지

『구별하는 표지』에 나오는 아홉 가지 부정적인 표지는 다음과 같다. 이 부정적인 표지는 부흥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근거들로 사용

되고 있다.

(1) “나타난 일이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일어났다는 것에서는 아무것도 결론 내릴 수 없다.”⁴ 하나님의 영은 무척 다양한 수단을 쓰기 때문이다. 에드워즈는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제한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부흥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반대한다.

(2) “사람의 몸에 나타난 효과인 눈물, 떨림, 신음, 큰 외침, 몸의 고통, 기력이 쇠함 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이 표지로 에드워즈는 몸에 나타난 효과들을 근거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흥 반대론자들의 확신을 무력화시킨다.

(3) “종교에 관한 대단한 야단법석과 소란이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 표지 역시 야단법석과 소란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흥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거부하는 표지이다.

(4) “상상 안에서 대단한 인상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력이란 기능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상력을 부흥이라는 맥락에서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수단으로서 본보기(example)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표지가 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본보기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가리킨다. 부흥 반대론자들은 다른 사람(본보기)의 영향을 받은 것은 성령의 역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에드워즈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부흥을 경험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6) “부흥을 경험한 많은 사람이 경솔한 행동과 부정한 행동을 저지른 것이, 부흥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표지가 되지는 않는다.” 에드워즈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을 예로 들며(갈 2:11-13), 거룩한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고, 그들의 실수가 성령의 역사를 모두 가리지

4) 이하의 『구별하는 표지』 및 『종교적 정서론』에서 인용되는 내용은 모두 필자의 번역이다.

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7) “판단에 실수가 있고 일에 사탄의 미혹에 섞여 있다고 그 일 전체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악마의 미혹에 이끌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에드워즈는 “진정한 성인들의 경우에, 은혜가 수많은 타락과 함께 거주하기도 하고, 새 사람과 옛사람이 같은 사람 안에 동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 나라와 악마의 나라가 같은 마음에 잠깐 함께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8) “이루어진 일이 대단한 실수나 수치스러운 행위에 빠져버렸다고 해서, 그 일 전체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 에드워즈는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의 예와 일곱 집사 중 하나인 니콜라(행 6:5)의 예를 들면서, 성령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위선과 배반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9) “그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주는 공포를 엄청난 비애감과 중대함을 가지고 강조하는 목회자에 의해 증진되었다는 것 같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에드워즈는 한 가장이 자기 자녀들이 지붕에 불이 붙은 집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면서, 진실한 목회자라면 성도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옥의 두려움을 심각하고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와 관계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다섯 가지 긍정적인 표지

다음에 나오는 다섯 가지 긍정적인 표지는, 에드워즈에 의하면, 확실하고 구별되는 성령의 역사라는 성경적 증거들이다.

(1)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세주라는 경외감을 더욱 고양한다.” 성령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하게하고, 그리스도로 이끌고,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갖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더 필요로 하고, 평소보다 더 그리스도

에 대해 고상하고 경외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며, 그리스도를 향해 정서가 더 기울어진다.

(2) “성령은 사탄의 관심인 죄를 짓게 하고 세상적 욕망을 고무시키는 것에 반대로 작용한다.” 성령은 사람들이 죄와 탐욕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의를 향하게 한다. 그 결과 세상의 즐거움, 이익 그리고 명예에 대한 경외감이 줄어든다. 그리고 그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심히 사라진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에 대한 깊은 관심을 두도록 돕는다.

(3) “성령은 성경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사람들을 진리와 거룩함 안에 세운다.” “말씀의 검”(엡 6:17)에 대한 에드워즈의 확신은 다음의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다: “모든 성경 구절은 옛 뱀을 괴롭히는 창(dart)이다. 그는 수천 번 찔리는 고통을 맛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에 대해 분노하며, 그 안에 담긴 모든 구절을 증오한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성경을 존경하지 않게 하며, 성경에 대한 애정을 품지 않게 하려고 할 것이다.”⁵

(4) “진리의 성령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끈다.” 에드워즈는 진리의 영인 성령과 실수의 영인 사탄을 대비함으로써 이를 설명한다. 진리의 영은 사람들을 빛으로 이끈다. 우리의 어둠을 제거하고, 속지 않게 하며, 진리에 대한 확신을 하게 한다.

(5) “사랑의 영인 성령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간을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사랑은 진실하고 거룩한 영의 영향이라는 최고의 증거이다. 성령은 영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고 그분들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한다. 그것은 외적으로 친절할 행동을 하게하며,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갈망하게 한다. 에드워즈는 “겸손한 사랑은 진실하고 거룩한 초자연적 사랑의 확실한 특징이다”고 말한다. 성령의 분명한 표시는 사랑과 겸손이다. 겸손과 사랑은 마귀의 영이 주는 교만과 악의와 완전히 반대된다.

5) Edwards, 앞의 책(1972), 254.

4. 『구별하는 표지』에 나오는 분별

이상에서 『구별하는 표지』에 나오는 아홉 가지 부정적인 표지와 다섯 가지 긍정적인 표지를 살펴보았다. 이 표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아홉 가지 부정적인 표지는 대체로 부흥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부흥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때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에드워즈는 부흥과 관련된 특별한 경험들을 성경적으로 변호하는데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다섯 가지 긍정적인 표지를 설명할 때 에드워즈는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셋째, 『구별하는 표지』에 나오는 분별은 동시에 인지적(cognitive)이고 정서적(affective)인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에드워즈는 분별하는 과정에서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별은 인지적인 과정이다. 이해를 얻고 관찰과 평가의 수단을 쓴다는 점에서, 에드워즈는 사건의 형태를 관찰하고 이것을 성경에 나온 기독교 신앙과 비교한다. 다른 한편, 분별은 정서적인 과정이다. 분별은 분별자의 경험적 이해가 필요하며 분별의 대상은 정서적 경험 그 자체이다. 부흥에서 사람들은 정서적 경험에 사로잡혔다: 두려움, 기쁨, 눈물, 기쁨으로 뿔, 하나님께 삼키는 듯한 느낌, 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슬픔 등. 이 정서들이 일차적인 분별의 대상이었다. 에드워즈가 『구별하는 표지』에서 정서의 신학을 발전시키지는 않았지만, 정서들은 분별할 내용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⁶⁾

6) Evan Howard, *Affirming the Touch of God: A Psychological and Philosophical Exploration of Christian Discernment*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0), 105.

IV. 『종교적 정서론』에 나오는 분별

1. 구조

『종교적 정서론』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점에서 『구별하는 표지』와 비슷하다. 첫 번째 부분, “정서의 본질 그리고 종교에서 정서의 중요성”에서, 에드워즈는 종교적 정서를 정의하고 기독교에서 그것의 가치를 변호한다. 두 번째 부분, “종교적 정서가 진정한 은혜의 정서인지 아닌지에 대해 불확실한 표지를 보여주기”에서, 그는 열두 가지 부정적 표지를 열거한다. 마지막 부분, “진정으로 은혜롭고 거룩한 정서를 구별하는 표지를 보여주기”에서, 그는 성령의 구원하는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영향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열두 가지 긍정적인 표지를 열거한다. 이와 관련해서 『종교적 정서론』의 부정적 표지 및 긍정적 표지가 『구별하는 표지』의 부정적 표지 및 긍정적 표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다시 말해서 더 보충설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장선상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전혀 새로운 목적과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2. 정서의 본질과 중요성

정서성(affectivity)은 에드워즈의 분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⁷⁾ 에드워즈가 정서성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잠시 살펴보자. 『구별하는 표지』에서 에드워즈는 뉴잉글랜드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보편적인 정서적 경향을 설명하고, 그런 정서적 경향을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운다. 그 후 『몇 가지 생각』에서 에드워즈는 정서라는 주제를 좀 더 집중해서 다룬다. 에드워즈의 작품집을 편집한 존 스

7) 정서가 분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가톨릭 전통에서 분별에 대해 가르치는 대표적 인물인 로울라의 이냐시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냐시오는 그의 책 『영신수련』에 기술한 “첫째 주간 및 둘째 주간 영성식별규칙”에서 “영적 위안”(spiritual consolation)과 “영적 고독”(spiritual desolation)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데 둘 다 정서를 다루는 개념들이다.

미스(John Smith)에 따르면, 『몇 가지 생각』에서 에드워즈는 “영혼의 정서”(the affections of a soul)를 의지(the will)로부터 분리하는 철학에 반대한다. 그리고 존 로크(John Locke)의 감각 주의적 심리학(sensationalist psychology)을 적용하여,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을 옹호한다. 인간은 통합적인 존재이다. 그 안에서 “모든 정서적인 행위는 어떤 의미로 의지의 행위이다.”⁸ 나아가 『종교적 정서론』에서 에드워즈는 이 정서성의 주제를 완전히 발전시킨다. 여기에서 에드워즈가 다루는 정서는 부흥의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를 말한다.

『종교적 정서론』의 첫 번째 부분은 정서의 정의와 중요성을 다룬다. 에드워즈는 정서를 “영혼의 성향과 의지가 활발하고 감지할 수 있게 발휘되는 것”(the vigorous and sensible exercises of the inclination and will of the soul)이라고 정의한다.⁹ 제럴드 R. 맥더모트(Gerald R. McDermott)는 에드워즈의 정서에 대한 정의를 더 쉽게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한다: “정서는 오래가고, 강하며, 깊고, 믿음과 함께 가며, 항상 행동으로 귀결되고, 정신, 의지, 느낌을 수반하는 것이다.”¹⁰ 에드워즈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력(understanding)과 성향(inclination)이라는 두 가지 뚜렷한 기능을 받았다. 이해력은 감각, 숙고, 분별, 관찰, 그리고 판단을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성향은 영혼이 관찰하고 고려한 것에 관하여 마음이 쏠리는 기능이다. 성향에 의해 영혼은 어떤 것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기뻐하거나 미워하고,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게 된다. 성향이 행동과 연결될 때, 그것을 의지라고 부른다. 성향이 발휘되는 것과 관련해서, 정신은 종종 “마음”이라고 불린다. 영혼의 성향과 의지가 발휘되는 것은 그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양한데, 성향이 더 활발하고 감지할 수 있게 발휘되는 것을 정서라고 부른다. 정서와 성향, 그리고 의지의 차이는 오직 “그 발휘되는 것의 생생함과 감지되는 정도”(the liveliness and

8) Edwards, 앞의 책(1972), 297-298; C. C. Goen, introduction to *The Great Awakening*, vol. 4 of *Works of Jonathan Edwards*, ed. C. C. Goe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66.

9) Edwards, 앞의 책(1959), 96.

10) Gerald R. McDermott, *Seeing God: Twelve Reliable Signs of True Spiritualit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5), 40-41.

sensibleness of exercise)의 차이라고 에드워즈는 말한다.¹¹ 정서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받아들이기와 좋아하기 또는 거부하기와 싫어하기. 앞에 있는 것은 사랑, 갈망, 희망, 기쁨, 감사, 그리고 자기만족 등을 포함한다. 뒤엎은 증오, 두려움, 분노, 그리고 슬픔 등을 포함한다.

다른 한편, 에드워즈는 정서와 정념(passion)의 차이를 강조한다: 정서는 “의지와 성향의 모든 활발하고 생생한 발휘”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지만, 정념은 “더 갑작스러운 것들, 그리고 동물적 영혼을 더 폭력적으로 만드는 것들, 정신을 제압해버리는 것들, 그 자신이 통제하기 힘들게 되는 것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¹² 스미스는 에드워즈의 이 차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왜냐하면 에드워즈의 반대자들이 생각할 때, 에드워즈는 지성을 희생시키면서 종교적 정념을 변호한다. 그들은 에드워즈가 정서는 자아가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반응하는 생각(idea)을 의미한다고 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¹³

정서의 중요성에 대한 에드워즈의 강조는 “진정한 종교는 대부분 정서로 이루어져 있다”(true religion, in large part, consists in the affections)¹⁴는 그의 말에 잘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의 의향이나 행동에 변화가 없는 많은 사람의 경우, “그들이 들은 것에 그들의 성향이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¹⁵ 성경은 진정한 종교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정서를 언급 한다: 두려움, 희망, 사랑, 증오, 갈망, 기쁨, 슬픔, 감사, 동정심 그리고 열심. 이들 가운데 사랑은 “정서의 선봉”(the chief of the affections)이고 “모든 다른 정서의 원천”이다.¹⁶ 정서는 또한 “행위의 샘”이다.¹⁷ 에드워즈에 따르면, 정서를 구분하지 않고 거부하고 폐기하는 사람들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종교적 정서가 없는 곳에 진정한 종교

11) Edwards, 앞의 책(1959), 97.

12) 앞의 책, 98.

13) John Smith, *Jonathan Edwards: Puritan, Preacher, Philosopher* (Notre Dame: Notre Dame University Press, 1992), 33.

14) Edwards, 앞의 책(1959), 99.

15) 앞의 책, 101-102.

16) 앞의 책, 106-108.

17) 앞의 책, 100.

는 없다.”(there is no true religion where there is no religious affection.)¹⁸ 그 결과 그들은 모든 종교를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내몰아 버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영혼을 파괴한다.

마지막으로, 에드워즈는 “잘못된 정서의 나쁜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이것은 우리가 참과 거짓 사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정서는 필수적이지만 잘못된 정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분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3. 열두 가지 부정적인 표지

『종교적 정서론』의 두 번째 부분에서, 에드워즈는 “정서가 은혜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표지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열두 가지 부정적 표지를 제시한다. 다시 말해서, 아래에 나오는 정서적 경험을 했을 때, 쉽게 성령의 역사라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확실한 표지가 될 수 없는 열두 가지를 말한다. 기억해야 할 것은 『구별하는 표지』에서 부흥의 일반적인 현상 그 자체가 분별의 대상이었던 것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분별의 대상이 “정서”라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종교적 정서를 경험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정서가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참고로, 『종교적 정서론』에서 에드워즈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경험한 정서를 “은혜로운 정서” 또는 “거룩한 정서”라고 표현한다.

다음은 에드워즈가 열거한 열두 가지 부정적 표지이다. (1) “종교적 정서가 매우 대단하거나 매우 고양된다는 것은 그것이 은혜로운 정서라는 표지가 아니다.”; (2) “몸에 대단한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이 그 정서가 진정한 종교의 본질을 갖고 있다는 표지는 아니다.”; (3) “종교에 관한 것들을 말하는 데 있어서 유창하게 하고, 열정적이게 하고 풍부하게 한다는 것이 그 정서가 진정으로 은혜로운 정서라는 표지는 아니다.” 이상의 세 표지 (1), (2), 그리고 (3)은 『구별하는 표지』에 나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부정적 표지와 유사하다. 유념할 것은 이 표지가 부흥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18) 앞의 책, 120.

반박하려는 목적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성경에는 매우 고양된 정서, 몸에 나타난 효과, 그리고 유창한 말 등이 성령 역사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예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예도 나온다. 그러므로 이 표지는 분별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

(4) “사람들이 그 정서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았다거나, 자신들의 계획대로 그 정서가 일어나도록 흥분시키지 않았다거나, 그들 자신의 힘으로 그 정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 그 정서가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표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영들도 빛의 천사들로 과장해서 비슷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5) “정서가 놀랍게 성경 구절을 마음에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그 종교적 정서가 진정으로 기록하고 영적이라는 표지는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드워즈는 마귀도 성경을 남용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6) “그 정서 안에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이 그 종교적 정서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표지는 아니다.” 이러한 성령 역사의 결과에 대해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더 우월한 것이 있을수록, 그것을 가장한 것이 나올 것이다. 비록 사랑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은혜 중 대표이고 모든 진정한 종교의 생명, 본질, 그리고 요약이지만, 그것 역시 가짜일 수 있고, 구원을 가져오는 은혜와 전혀 상관없을 수 있다. 이 표지는 『구별하는 표지』에 나오는 다섯 번째 긍정적 표지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7) “어떤 사람이 지닌 종교적 정서의 종류가 많고 함께 있다는 사실이 기록한 정서를 가졌는지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에드워즈에 의하면, 모든 종류의 종교적 정서에는 그에 해당하는 가짜가 있다.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다양한 기능, 원리 그리고 정서는 하나의 원천에서 나오는 많은 통로다. 그러므로 그 나타나는 것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경험과 거짓된 경험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8) “위로와 기쁨이 각성과 양심의 가책 뒤에 따라왔다는 이 어떤 순서를 가지고 정서의 본성을 결정할 수는 없다.” 방법과 순서가 회심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이 일으키는 모든 구원의 작용과 은혜를 흉내 낼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준비하며 오는 그런 작용도 흉내 낼 수 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의 본성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그 열매를 생

산해내는 성령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9) “사람들이 종교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예배의 외적 의무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지닌 종교적 정서 안에 진정한 종교의 본질이 담겨 있다는 표지는 아니다.” 참된 종교가 사람 안에 그런 종교 행위 안에서 기쁨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적 종교 행위에 지나치게 마음을 쏟는 것에 대해 에드워즈는 경고한다.

(10) “사람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종교적 정서의 확실한 본질이 될 수는 없다.” 이 표지는 위의 아홉 번째 표지에 포함되지만, 에드워즈는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교만과 적대감을 여전히 가진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친절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무가치함으로부터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11) “그들이 경험한 것이 거룩하고 그들이 좋은 신분이 되었다는 대단한 확신을 하게 만든 것이 그들이 지닌 정서가 옳은지 그른지 알려주는 표지는 아니다.” 사람들이 대단한 확신을 품은 정서를 지니고 있다고 위선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나 그들이 대단한 자기 확신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성인이라고 평가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12)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매우 감화력이 있고 기쁨을 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진정한 종교적 정서의 본질인지를 알려주는 표지는 아니다.” 에드워즈는 외적으로 드러난 것에 의해 사람들을 판단하는 방식이 불확실하고 속아 넘어가기 쉽다고 강조한다. 참된 성인이라고 해서 누가 경건하고 누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가진 것은 아니다. 스미스에 의하면, 이 열두 번째 부정적 표지에서 거론되는 외적인 판단은 신뢰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에드워즈의 관점은 다음의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¹⁹ 첫째, 영의 분별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해 오직 자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보이는 교회 내부의 보이는 성인들 사이에서 용납의 근거를 형성하는 “공

19) John E. Smith, introduction to *Religious Affections*, vol. 2 of *Works of Jonathan Edwards*, ed. John E. Smith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9), 21.

적 자선”(public charity)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그 사람의 종교적 지위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내포해서는 안 된다.

4. 열두 가지 긍정적인 표지

에드워즈가 『구별하는 표지』를 쓴 후에 더 “구별되고 확실한” 표지를 기술할 필요성을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 그 까닭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구원 경험을 불확실한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흥을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였지만, 부흥 안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는 좀 더 분별해봐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종교적 정서론』의 열두 가지 긍정적 표지는 『구별하는 표지』의 다섯 가지 긍정적 표지보다 훨씬 숫자도 많지만, 더욱 미묘하고 복잡한 양상을 띤다.

열두 가지 긍정적 표지를 구분하는 몇 가지 이론이 있다. 먼저, 스미스는 『종교적 정서론』의 열두 가지 긍정적 표지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정서 그 자체, 정서의 근거, 그리고 정서의 결과. 다음으로, 하워드 는 정서적 움직임의 시작, 중간, 그리고 끝을 살피는 청교도적 자기 성찰을 연상하며 스미스의 이 세 가지 구분을 받아들인다.²⁰ 스미스와 하워드의 제안을 바탕으로 열두 가지 표지를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1)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표지: 은혜로운 정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2)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표지: 은혜로운 정서에 수반되는 것은 무엇인가?; (3) 열한 번째부터 열두 번째 표지: 은혜로운 정서에서 나오는 열매는 무엇인가?²¹

가. 은혜로운 정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1) “진정으로 영적이고 은혜로운 정서는 마음 안에 일어나는 영적이고, 초자연적이고, 거룩한 영향과 작용(operations)으로부터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영적, 초자연적, 거룩한 작용”이 거룩한 정서의 기반이다. 여기에

20) Howard, 앞의 책(2000), 121.

21) “은혜로운 정서”는 성령 역사의 결과로 경험하게 되는 정서를 가리킨다.

서 영적이란 육적 감각적 자연적인 것과 반대되는 말이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이 내주함으로써 그 마음에 “생명의 씨앗 또는 생명의 샘”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그럼으로써 그 영혼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게 한다. 초자연적이란 “자연적인 것과 정도와 상황에 있어서 다를 뿐만 아니라, 종류에서도 다른 것이다.” 종교적 정서를 거룩하다고 한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성인들이 “거룩한 본성에 참여자”가 되고 “하나님의 찬미하심과 하나님의 영적 아름다움과 행복”에 참여자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에드워즈는 “새로운 내적 인지”(new inward perception) 또는 “새로운 영적 감각”(new spiritual sense)이란 말을 소개하는데, 이것은 에드워즈의 분별에서 무척 중요한 개념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거룩해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속해 있던 어떤 것과도 그 본성과 종류에서 다른 것이다. 새로운 영적 감각과 그에 수반되는 새로운 의향(dispositions)은 “본성의 새로운 원리들”(new principles of nature)이 된다. 본성의 원리는 본성 안에 놓여있는 기반이다. 새로운 영적 감각은 이해력과 의지의 새 기능이 아니라, 영혼의 본성에 있는 새 기반으로서 이해력과 의지라는 같은 기능을 새롭게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혼의 필수적인 기능인 이해력, 의지 그리고 정서를 파괴하지 않는다.

(2) “은혜로운 정서의 첫째가는 객관적 기반은 거룩한 것들 그 자체가 지닌 초월적으로 탁월하고 사랑스러운 본성(the transcendently excellent and amiable nature of divine things)이다.” 진정한 사랑, 감사 그리고 기쁨은 여기에서부터 나온다. 모든 은혜로운 정서의 원천인 “기독교적 사랑”은 하나님의 탁월하고 사랑스러운 본성에서 나온다. 진정한 성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식을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 사랑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탁월성과 영광 때문이다. 또한 진정한 성인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닌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본성에서 나오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고 있다.

(3) “진정으로 거룩한 정서는 우선적으로 거룩한 것들의 도덕적 탁월성의 사랑스러움(the loveliness of the moral excellency of divine things)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것들이 지닌 도덕적 탁월성의 아름다움과 달콤함 때문에 거룩함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룩한 정서의 시작이고 원천이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진실하심, 신실하심, 그리고 선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도덕적인 대리인으로서 발휘하는 특징을 가리키는 말이다. “거룩하심”은 지적인 존재가 지니는 모든 참된 도덕적 탁월성을 아우르는 말이다. 은혜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연적 특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비롯된 그 특징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강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한 에드워즈의 접근법의 미학적 특징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아름다움에서 비롯된 정서는 분별의 중요한 한 요소이다.

(4) “은혜로운 정서는 거룩한 것들을 바르게 영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각성된 정신(enlightened mind)에서 나온다.” 그래서 은혜로운 정서의 네 번째 기반은 “영적 이해력”(spiritual understanding)이다. 에드워즈에 의하면, 영적 이해력은 감지할 수 있는 미학적인 지식이다. 영적 이해력은 “마음의 감각”(the sense of heart)으로 불리며 사색적 지식(speculative knowledge)과는 다르다. 영적 이해력은 진정으로 선행하고 거룩한 것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맛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우리는 마음의 감각으로서의 영적 이해력이 매우 미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상현은 “미학적 감각은 인간 전 존재의 통합된 일치의 한 기능이다”고 표현했다.²²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사람은 마음의 거룩한 맛과 의향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다: “그는 쉽게 선과 악을 구분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적절한 사랑스러운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즉각 안다.”²³ 클라렌스 E. 하디 3세(Clarence E. Hardy III)는 에드워즈가 말하는 영적 지각으로서의 영적 이해력을 “여섯 번째 감각(a sixth sense)”이라고 부른다.²⁴ 이 여섯 번째 감각은 다른 모든 다섯 가지 감각을 합쳐서

22) Sang Hyun Lee, *The Philosophical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150.

23) Edwards, 앞의 책(1959), 282.

24) Clarence E. Hardy III, “Imagine a World: Howard Thurman, Spiritual Perception, and American Calvinism,” *The Journal of Religion* 81 (2001): 88.

거룩한 것을 접촉하게 하고 갈망하게 한다.

영적 이해력이란 표현을 통해, 에드워즈는 극단적인 부흥유형의 종교가 지닌 반지성주의적 편견을 거부하려고 한다: “거룩한 정서는 빛이 없이 열만 내는 것이 아니다.”²⁵ 에드워즈는 여기에서 이해력이라는 말을 마음의 경향(*inclination of the heart*)이라는 감각적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합리성을 지닌 기준으로 사용한다. 이해력이 없으면, 정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워드에 의하면, 마음의 감각 또는 영적 실재의 새로운 지각으로서의, 영적 이해력은 에드워즈의 분별에서 “인식론적 기초”(the epistemological foundation)이다. 마이클 J. 맥클리몬드(Michael J. McClymond)는 에드워즈의 영적 감각과 관련해서, “영적 감각은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보는 어떤 방식이다”라고 설명한다.²⁶ 영적 감각은 한 개인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이다. 에드워즈의 영적 감각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영적 감각, 영적 이해력, 또는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나. 은혜로운 정서에 수반되는 것은 무엇인가?

(5) “진정으로 은혜로운 정서는 거룩한 것들의 실재성과 확실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영적인 확신을 수반한다.” 영적 확신은 영적 이해력으로부터 나온다. 에드워즈는 영적 확신의 두 가지 방식에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직접적인 방식과 간접적인 방식.²⁷ 첫째, 영혼은 거룩한 일들에 대해 일종의 직관적 지식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영적 이해력은 거룩한 일들의 진실성을 거부하는 마음의 편견을 제거하고 이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돕는다.

(6) “은혜로운 정서는 복음적 굴종(겸손)을 수반한다.” 복음적 굴종(겸손)(*evangelical humiliation*)은 “책임감과 함께 갖는 불충분함, 비열함, 가증함

25) Edwards, 앞의 책(1959), 266.

26) Michael J. McClymond, *Encounters with God: An Approach to the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10.

27) Edwards, 앞의 책(1959), 307-308.

의 감각이다.” 그것은 거룩한 것들의 도덕적 성질이 초월적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감지하는 데서 나오며, 위대한 기독교적 자기 부인의 의무에서 주요한 요소가 된다. 반대로, 영적 교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종교적으로 자기가 성취한 것을 높게 보게 하고 그 자체로 우쭐하게 한다. 진정한 기독교인의 사랑은 겸손하고 부서진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7) “은혜로운 정서는 본성의 변화를 수반한다.” 오직 창조주의 힘만이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회심이란 죄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위대하고 우주적인 인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 회심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다: “본성의 변화는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 수행되는 것이다; 영광 안에서 완전을 이룰 때까지.”²⁸ 그러므로 에드워즈의 분별 또한 순간적이라기보다는 평생 계속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8) “진정으로 은혜로운 정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 같은, 비둘기 같은 영과 성정(temper)을 수반 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사랑, 온유함, 조용함, 용서함과 자비의 영을 소유하고 증진한다.” 진정한 기독교인의 용기(fortitude)는 마음(mind)에서 제멋대로 구는 정념들을 가라앉히고 선한 정서와 성향들을 꾸준히 따르는 것이다. 여기에서, 에드워즈는 정념과 진정한 기독교인의 열심을 비교한다. 정열적으로 폭력적으로 발휘되는 정념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잘못된 만용이다. 반대로, 거룩한 사랑 또는, 달콤한 화염의 열기와 열정과도 같은 기독교인의 자선 열기, 기독교인의 열심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담대함이다.

(9) “은혜로운 정서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기독교인의 영적 부드러움을 수반한다.” 은혜로운 정서는 돌 같은 마음을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킨다. 진정한 참회자의 마음은 불을 두려워하는, 화상 입은 아이처럼 매우 민감하다.

(10) “진정으로 은혜롭고 거룩한 정서는 아름다운 균형(symmetry)과 조화(proportion)를 수반한다.” 에드워즈는 조화란 정서적 성화가 우주적인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한다. 성인들 안에서는, 거룩한 소망과 거룩한 두려움, 기쁨과 경건한 슬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28) 앞의 책, 343.

을 향한 사랑이 함께 한다. 은혜로운 정서는 다양한 정서 가운데 일치성과 균형(balance)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은혜로운 정서에서 나오는 열매는 무엇인가?

(11) “은혜로운 정서가 고양될수록 영적 성취(spiritual attainments)을 위한 영적 식욕과 갈망이 더욱 증가한다.” 반대로, 잘못된 정서는 그 자체로 만족하며 머무른다. 은혜로운 정서는 계속 자라가고 갈망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 더 큰 영적 발견과 영적 정서를 갖게 될수록, 그는 더 은혜와 자라는데 필요한 영적 양식을 구하는 착실한 거지가 된다.”²⁹

(12) “은혜롭고 거룩한 정서는 기독교인의 실천 안에서 발휘되고 열매를 맺는다.” 이 표지가 열두 가지 긍정적인 표지 가운데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기독교인의 실천”이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참되고 구원하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표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인의 실천은 은혜의 모든 표지 가운데 선봉이다. 신앙고백자의 신실함을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의 양심에 증거 하는 것이다.”³⁰ 에드워즈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실천은 순종, 착실함과 부지런함, 인내라는 세 가지를 내포한다. 에드워즈는 열두 번째 표지에서 실천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기독교인의 경험과 실천 그리고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고 그럼으로써 기독교인의 성품을 통합하고 있다. 그렇다고 에드워즈의 실천 옹호가 행위에 의한 칭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영혼에 내주하는 성령은 그 사람의 본성과 행위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을 보여주고 하는 것이다.

5. 『종교적 정서론』에 나오는 분별

『종교적 정서론』에서, 에드워즈가 강조하는 것 중 몇 가지는 독특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분별의 대상으로서 정서가 중요하다.

29) 앞의 책, 378.

30) 앞의 책, 406.

둘째, 회심의 기반으로서 영적 이해력 또는 마음의 감각이 중요하다. 셋째, 분별의 주된 요소로서 미학적인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넷째, 기독교적 실천은 구원적 은혜의 중요한 표지이다. 다섯째, 분별은 정서적이면서 동시에 이지적인 과정이다. 여섯째, 분별은 분별하는 사람의 성숙성에 의존한다.

『종교적 정서론』은 기독교 영적 분별의 역사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 스미스는 『종교적 정서론』이 세 가지 기본적인 기여를 했다고 본다.³¹ 첫째, 에드워즈는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본성이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삶의 두 드러진 종교적 차원을 새롭게 했고, 그럼으로써 종교의 축소를 막았다. 둘째, 에드워즈는 이해력을 개인의 직접적 경험과 관련시킴으로써 그의 미를 확장했다. 셋째, 에드워즈는 비록 경건이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에 궁극적인 뿌리를 두고 있지만, 경건이 어떻게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시험에서 적합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는 부흥회적인 종교에 대한 현재의 관심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반을 우리에게 마련해 준 것이다.

V. 『구별하는 표지』와 『종교적 정서론』 비교

먼저, 『구별하는 표지』와 『종교적 정서론』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자. 우선, 두 작품은 그 구조가 비슷하다. 둘 다 표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부정적인 표지와 긍정적인 표지 사이를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논문에서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도중에 무엇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무엇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 어떻게 확실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 내용에서도 몇 가지 표지는 겹친다. 예를 들어, 『구별하는 표지』에 나오는 부정적 표지 가운데 첫 번째 (매우 특별한 방식), 두 번째 (몸의 효과), 세 번째 (소란) 표지는 『종교적 정서론』에 나오는 부정적 표지 가운데 첫 번째 (고양된 정서), 두 번째 (몸의 효과), 세 번째 (유창한 말)에서 심화 반복

31) Smith, 앞의 글(1959), 44.

되고 있다.

『구별하는 표지』와 『종교적 정서론』이 그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다른 점이 많다. 먼저, 두 작품은 분명히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앞의 논문은 부흥의 일반적인 현상과 관련해서 부흥을 성령의 역사로 옹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면, 뒤의 논문은 부흥 안에서 각 개인이 내면에 경험하는 정서의 뿌리를 좀 더 세밀하게 분별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음으로, 하워드는 두 작품의 분별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구별하는 표지』에서는 분별의 대상이 부흥에 나타난 일반적이고 집단적인 정서적 경향(affective trend)이지만 『종교적 정서론』에서는 개인에 의해 경험되는 정서 그 자체가 분별의 대상이다. 또, 두 작품에서 에드워즈가 반박하는 대상도 각각 다르다. 『구별하는 표지』에서는 에드워즈의 반대자들이 부흥현상 자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지만 『종교적 정서론』에서 에드워즈의 강력한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모든 종류의 정서적 경험을 성령의 역사라고 믿는 “열심주의자들”이다. 필자가 보기에 『구별하는 표지』와 『종교적 정서론』의 차이점은 분별하는 사람으로서 에드워즈가 시도하는 분별의 발달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에드워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분별에서 성령의 구원적 역사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VI. 나가는 말

에드워즈는 『구별하는 표지』와 『종교적 정서론』을 통해 영적 경험을 깊이 있게 분별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영적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에드워즈가 정리한 영적 경험의 분별에 관한 아이디어를 한국 교회에 적용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에드워즈가 분별의 대상으로 정서를 중심에 놓은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에드워즈가 고려한 정서는 폭넓게 감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영적 분별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을 살펴보는 것이 분별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물

론,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우선시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한국 개신교인들이 “은혜받았다”고 표현하는 정서적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분별해볼 필요가 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그 자체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 개신교인들은 일상적인 경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특별한 영적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도 되짚어보아야 한다. 영성 생활에서 일상성이 무시되는 방향으로 안내되는 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넷째, 성경 및 예배, 찬양, 전도 등 신앙의 외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쉽게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해보아야 한다. 에드워즈가 『종교적 정서론』에서 제시한 부정적 표지는 한국 개신교인들이 쉽게 확신하는 많은 구원의 표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마지막으로, 에드워즈의 긍정적 표지는 한국 개신교인들을 좀 더 깊이 있는 내적 성장과 함께 그 결과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를 맺도록 초대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개신교인들의 영적 경험 사례들을 연구하여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분별의 원칙을 세우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Edwards, Jonathan. "Some Thoughts Concerning the Revival of Religion in New England." in *The Great Awakening*. Vol. 4 of *Works of Jonathan Edwards*, edited by C. C. Goe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 _____. "The Distinguishing Marks of a Work of the Spirit of God." in *The Great Awakening*. Vol. 4 of *Works of Jonathan Edwards*, edited by C. C. Goe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 _____. *Religious Affections*. Vol. 2 of *Works of Jonathan Edwards*, edited by John E. Smith.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9.
- Goen, C. C. Introduction to *The Great Awakening*. Vol. 4 of *Works of Jonathan Edwards*, edited by C. C. Goe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 Hardy III, Clarence E. "Imagine a World: Howard Thurman, Spiritual Perception, and American Calvinism." *The Journal of Religion* 81 (2001): 78-97.
- Howard, Evan. *Affirming the Touch of God: A Psychological and Philosophical Exploration of Christian Discernment*.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0.
- Lee, Sang Hyun. *The Philosophical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 McClymond, Michael J. *Encounters with God: An Approach to the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McDermott, Gerald R. *Seeing God: Twelve Reliable Signs of True*

Spiritualit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5.

Smith, John E. Introduction to *Religious Affections*. Vol. 2 of *Works of Jonathan Edwards*, edited by John E, Smith.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9.

_____. *Jonathan Edwards: Puritan, Preacher, Philosopher*. Notre Dame: Notre Dame University Press, 1992.

Abstract

Spiritual Discernment in Jonathan Edwards' Writings: *Distinguishing Marks and Religious Affections*

Lee, Kang Hack

Assistan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Many contemporary Korean Protestants feel they need some guidance for their spiritual journey, especially in the area of discernment for their spiritual experiences.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Jonathan Edwards' writings, in particular, *Distinguishing Marks* and *Religious Affections*, two of the prominent writings dealing with the issue of discernment in terms of spiritual experiences which American Protestants in the eighteenth century had during the Great Awakening, called major revivals. In this paper, I briefly described the context of the two treatises and analyze the negative and positive signs of true religion in *Distinguishing Marks* and *Religious Affections* for understanding Edwards' thoughts on discernment. Then, I compared the two treatises and focused on some characteristics.

In *Distinguishing Marks*, Edwards presents nine negative signs and five positive signs. Here, negative signs mean those signs by which opponents of the revival wrongly sought to discount the event as a work of God but which are not reliable. Five positive signs mean those signs which are evidences that the revival is a work of the Holy Spirit. In

Religious Affections, Edwards primarily provides definition of affections, then twelve negative signs and twelve positive signs. His definition shows the importance of reviewing affective inner movements including emotions and feelings in spiritual experiences during the process of discernment. By negative signs, Edwards mean those signs which are not reliable as evidences of the work by the Holy Spirit. Here, different from his target in the *Distinguishing Marks*, Edwards offers those signs against the enthusiasts who tended to easily trust all the affectively uprising experiences. Meanwhile, twelve positive signs are those signs which are the more distinguishing and certain signs of the saving influence of the Holy Spirit.

The differences between *Distinguishing Marks* and *Religious Affections* seem to show the developmental aspects of Edwards' discernment on affective experiences in revivals. Edwards' signs, negative and positive, show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he balance between the elements of cognition and affection in the process of discernment. Other major important elements of Edwards' discernment are a sense of heart, an aesthetic element, and Christian practice. Those may help Korean Christians for discerning their spiritual experiences.

Key Words

Spiritual Discernment, Jonathan Edwards, Revival, *Distinguishing Marks*, *Religious Affections*.